

아동의 모 애착 및 분노와 정서·행동문제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attachment to mother, anger and emotional · behavioral problems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과

박사과정 전 은 청*

부 교수 이 진 숙**

Dept. of Child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Chun, Eun-Chung

Associate Professor : Lee, Jin-Suk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attachment to the mother, trait anger, anger expression style, and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in children. The subjects were 384 5th and 6th graders at elementary schools in J and G cities of Jeonbuk-Do. The instruments were Revis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R), Stat-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 Korean version (STAXI-K), and Strength and Difficulty Questionnaire (SDQ).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The level of children's attachment to the mother was negatively related to anger and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and the level of trait anger was positively related to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Children who have high anger expression and anger suppression tended to show more externalized behavior problems. Finally,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children's attachment to the mother and anger are revealed as significant factors in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주요어(Key Words) : 모 애착(mother attachment), 특성분노(trait anger), 분노표현방식(anger expression style), 정서·행동문제(emotional · behavioral problems)

I. 서론

아동기는 정서행동발달과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에 획득한 경험과 그 결과는 이후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지속된다.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이후 청소년의 비행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송지영, 2010),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기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정서행동문제 아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건강보험심

사평가원(2010. 5)에 의하면 최근 5년(2005~2009년)사이 정서행동문제로 인해 진료를 의뢰하는 소아청소년이 연평균 1만 1000명씩 13.9%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서·행동문제를 야기하는 중요 요인으로 많이 제시되는 것이 바로 분노다. 아동기는 분노감정을 조절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지만, 현실적으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방치되어 가는 많은 아동들은 부정적 정서 특히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고 수정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지에 대해 적절히 배워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노는 생후 3개월경이 되면 나타나게 되는 가장 일차적인 정서이며, 그러기에 분노는 인간이 표현하는 가장 기초적 감정

* 주 저 자 : 전은청 (E-mail : kikiec@hanmail.net)

** 교신저자 : 이진숙 (E-mail : jslee0820@jbn.ac.kr)

이고, 인간 생존과 연결된 정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분노는 사회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역경에 대처하는 데 상당한 적응적 가치를 지니며 통제감을 느끼게 해주고, 또한 좌절이나 부당함에 직면했을 때 인내심을 촉진시켜 주는(Novaco, 1994) 등 지극히 정상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노는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방해받거나 좌절하게 되거나 본능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자신이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될 때 나타나게 되면 부정적인 정서감정을 나타나게 된다(Carter & Minirth, 1993; 이승재 역, 2001). 이렇게 유발된 분노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고 억제될 경우에 다른 부정적 행동과 정서로 대체되기도 하며(Sharkin, 1988), 타인에 대한 분노는 대체로 난폭한 말투나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으므로 분노가 남발되거나 부적절하게 표현될 때에는 인간관계가 악화되기도 한다(김용섭, 1984).

평소 사람들이 나타내는 분노에 대해 Spielberger, Jacobs, Russell, 및 Crane(1983)은 상태분노와 특성분노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상태분노는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강도가 변할 수 있는 정서 상태를 말하며, 특성분노는 얼마나 자주 분노를 일으키는가 하는 개인의 분노 경향성을 말한다. Spielberger 등(1983)과 Deffenbacher(1999)에 따르면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은 분노에 대해 잘 대처하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 더 자주 분노를 억제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발산하게 된다. 최근 들어 이러한 분노표출의 형태가 아동·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점점 더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행동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분노의 표현양식에 대해 Spielberger와 Jacobs(1983)는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조절로 그 양식을 구분하였다. 분노-억제는 자신의 분노를 자기 내부로 돌리거나 분노유발 상황과 관련된 사고 혹은 기적, 그리고 분노자체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화가 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언제나 화가 난 상태에서 생활하고 분노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노를 폭발적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송지은, 2007). 그리고 분노-표출은 자신의 분노를 환경속의 타인이나 대상에게 나타내는 경우를 말하며(차세연, 2010), 분노조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노감정을 간접적 방식으로 표현하고 분노를 다스리고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Spielberger et al., 1983).

분노의 표현양식은 학습과 더불어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받아 발달하게 되는데, 아동의 경우 분노를 유발시킨 사람이 성인인 경우에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대처를 하게 되지만 또래인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며(Allan & Gilbert, 2002; Eric & Ryan, 2005),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분노표현양식도 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안근석, 1991). 즉, 아동이 성숙하면서 정서표현 방법이 수정, 변화하는데

점차적으로 과격한 표현을 줄이면서 주변의 사회적 환경에 비추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게 된다(정인석, 1988; Elleson, 1982; Allan & Gilbert, 2002).

아동기는 에릭슨의 발달단계에서 근면성과 열등감의 시기로서, 아동이 부정적 정서경험을 하게 되면 좌절감과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감정은 아동으로 하여금 분노감을 느끼게 한다(정옥분, 2004). 아동기는 자신의 정서적인 부분을 인식하고 분노표현방식을 형성해가는 시기로서(김귀랑, 2005), 다른 사람으로부터 실제적 또는 위협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위해를 받았을 때 분노를 느끼며, 신체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침해되었을 때, 그리고 열중하고 있는 활동이 저지되었을 때 분노를 표출한다(정인석, 1988). 즉, 아동이 자신의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할 경우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표현하게 되고, 이는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로 표출될 수 있다. 전반적인 아동기의 분노가 중요하지만, 특히 후기 아동기는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로서, 저학년 때와는 달리 부모나 교사, 사회에서 받는 기대가 더 높아지면서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커져가고(정원주, 1997), 신체적으로는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외모와 자존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죄책감, 수치심, 분노 등의 복잡한 정서를 경험하며, 풍부한 정서적 감수성을 발달시켜 나가게 됨으로써(박명희, 2004), 저학년 시기보다 정서적 불안감과 내적 분노감 역시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이처럼 후기 아동기에 느끼는 분노감이 정서행동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부정적 정서나 모의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살펴본 연구(정미영, 1999; 정윤희, 2002), 그리고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분노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양야기·이정숙, 2009; 이규미, 1998; 이영애, 2000; 주지영, 2009) 등이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상대적으로 후기 아동기의 분노와 정서·행동문제간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미비한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후기 아동기에 경험하는 분노감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할 경우, 이는 청소년기로 가면서 품행장애나 반항성 장애 등의 병리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Ray, Blanco, Sullivan, & Holloman, 2009) 보고하여 후기 아동기의 분노가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시사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기 아동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대상으로 하여 아동기의 분노표현양식과 정서·행동문제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으로, 주 양육자와의 애착 정도는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살펴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유발하는 분노는 생후 3개월이면 느끼게 되는 기본적 정서로 초기 아동이 경험하는 신뢰감과 연관을 지을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의 영아와 주 양육자와의 신뢰로운 애착

관계는 아동의 정서발달에 큰 영향을 끼친다. Bowlby(1973)는 분노를 타인의 부정적인 애착행동에 대한 적응적인 저항 반응의 일환으로 보았으며, 불안정한 애착경험은 순기능적인 분노를 역기능적인 분노로 변형시킨다고 하였다. 안정적인 애착경험은 아동이 타인의 부정적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게 하며,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의 분노유발행동에 대해 자신이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지니게 하며(김진아, 2007), 불안정 애착 유형은 내면의 불안정으로 인해 정서경험 및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적 자원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Collins & Read, 1990).

Armsden과 Greenberg(1987)의 IPPA를 이용한 부모 및 또래 애착과 심리적 안녕, 자존감 삶에 대한 만족의 관계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 및 또래의 애착 안정성이 높은 아동이 분노를 낮게 보고하였으며, Mikulincer(1998)도 안정적으로 애착된 사람이 순기능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경험하는 반면에 불안정하게 애착된 사람은 역기능적으로 분노를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애착유형에 따라 분노의 역할과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과 모와의 애착관계에서 불안정한 아동이 분노감을 경험함으로써 정서·문제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애착과 분노간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연구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현주, 2009; 나승은, 2009; 문소현, 2007)와 성인대상 연구(김혜진·신현균·홍창희, 2008)들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진아, 2007)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또한 아동의 모 애착과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유아와 모와의 애착과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곽소현·김순옥, 2006; 김숙령, 1995; 김혜순, 2009)가 주를 이루고 있어 상대적으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모 애착과 분노, 정서·행동문제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비하였다. 특히 후기 아동기의 분노표현과 정서·행동문제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해소시켜주는 것은 이후의 발달단계와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게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연구가 미비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모 애착과 분노 또는 분노와 정서·행동문제간의 관계, 그리고 애착과 정서·행동문제 등 두 변인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세 변수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동기에 경험하게 되는 분노감은 아동이 주 애착대상과 어떤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인이 되며, 애착정도에 따른 분노표현방식의 차이는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으므로 세 가지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더욱 근원적인 배경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모 애착과 정서·행동문제에 있어서 성별의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김현주,

2005; 이민영, 2010; 진향덕, 2000), 후기아동기(5, 6학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그 결과가 일관되지 못하였다. 모 애착 정도에 대한 성별 차이가 있었는가에 대해 이하경(2003)의 연구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영옥(2002)은 성별의 차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남아가 여아보다 정서적, 행동적 요인에서 불안이나 우울을 제외한 정서·행동문제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성별의 차이 라기 보다는 부모의 양육과 관련된 결과라고 보고하고 있다(이은경, 2003). 또한 분노표현방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최형석(2005)은 분노표현방식에 있어서 남아가 여아보다 분노억제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김진아(2007)의 연구에서는 분노억압에서 여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일관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모 애착 정도와 분노표현방식, 정서·행동문제에서 성차의 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각 요인이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기아동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모 애착 정도와 분노, 정서·행동문제간의 관계 등 세 변수간의 관계 및 애착과 분노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양상과 그 원인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중심으로 분노,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아동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와의 애착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인데, 선행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애착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수이며(유정인, 2005), 모 애착과 부 애착 간에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Armsden & Greenberg, 1987) 보고 된 바 있다. 그리고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후기 아동기의 분노와 정서·행동문제에 있어서 남자와 여아의 개별적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성별에 따라 모 애착 정도와 분노, 정서·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모 애착 정도와 분노, 정서·행동문제 간에 관련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모 애착 정도와 분노가 행동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전라북도 J시와 G시 소재 초등학교 3곳을 선정하여 총 384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N	%
성별	남아	183	47.7
	여아	201	52.3
학년	5학년	193	50.3
	6학년	191	49.7

학년별로는 5학년 193명(50.3%), 6학년 191명(49.7)이며, 남녀 비율로는 남아 183명(47.7%), 여아 201명(52.3%)이다.

2. 측정도구

1) 아동의 부모애착 척도

아동의 부모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 (1991)의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척도 개정판(Revis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R)을 옥정 (199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부모애착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척도로, 부모애착과 모 애착을 구분하여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의 3가지 하위영역에 걸쳐 25문항(의사소통 9문항, 신뢰감 10문항, 소외감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소통은 부모와 아동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감은 부모가 아동이 자신을 믿어준다고 느끼고 아동도 부모를 믿음직하게 느끼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소외감은 아동 자신이 부모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여부이다. Likert 5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모에 대한 애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Chronbach' α 값 .89로 나타났다.

2) 분노척도

Spielberger와 그의 동료들(1988)이 개발한 상태-특성분노 표현척도(Stat-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Korean version)를 전경구(1996)가 번안한 것을 김백영(1997)이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개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분노경험과 분노표현을 동일한 척도에서 측정할 수 있는 44문항의 자기보고형 척도로서, 분노의 경험적 측면은 상태분노(10문항)와 특성분노(10문항)로 구성되어 있고, 분노의 표현적 측면은 분노억제(내향화된 분노), 분노표출(즉각적 공격표출 행위), 분노조절(분노감정을 상황에 맞게 표현 시기와 방법을 찾고 자기를 조절)이 각각 8문항씩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적으로 느끼는 분노감과 그 표현방식을 알아보려고 상황이 나 시간에 따라 강도가 변할 수 있는 정서 상태인 상태분노를 제외하고 아동의 경험적 측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경험되는 기질적인 분노인 특성분노와 분노의 표현적 측면인 억제, 표출, 조절을 검사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특성분노 Chronbach' α = .88이며,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조절 하위척도 각각 Chronbach' α 는 .79, .82, .67로 나타났다.

3) 정서 행동문제 척도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SDQ)는 4~16세 소아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를 선별하는 도구로서, 영국의 Robert Goodman이 1997년에 Rutter Questionnaire를 기본으로 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안정숙·정성균·한준규(2003)가 한국어판으로 개발한 것으로서, 11~16세용 S11-16 FOLLOW-UP(자기보고형)을 사용하였다. SDQ는 난점 소척도인 정서적 문제, 품행문제, 과잉행동, 또래문제 각 5문항과 강점 소척도인 친사회성 5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3점 척도로서,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0점), 때때로 그렇다(1점), 확실히 그렇다(2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품행, 과잉, 또래문제, 친사회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분노표현 양식에 따른 행동문제를 알아보려고 사용하였으며, 결과분석 시 원척도의 하위요인 신뢰도가 .60이하로 나타나,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삭제하고 문항을 선별하였다.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방식으로 회전하여 추출한 결과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51.2%였다. 각 요인은 정서문제(예: 나는 자주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하거나 몸이 아프다), 과잉행동(예: 나는 차분하지 않고 부산하며,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못한다), 친사회성 문제(예: 나는 자주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다른 아이들을 자진해서 도와준다)로 명명하였으며 각 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사회성 문제 2문항은 긍정문항을 역점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친사회적이지 못한 것을 나타낸다. 정서문제, 과잉행동, 친사회성 문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가 각각 .63, .71, .62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전라북도 소재 두 개 중소 도시를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J시와 G시에서 3개 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총 10학년 아동 388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대상학교의 선정 기준은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2010년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하여, 총 400부를 배부하여 388부를 회수하였고, 부실 기재한 4부

를 제외한 38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실시 전에 연구자가 각 반 담임교사를 직접 만나 본 연구의 취지와 질문지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질문지 작성은 각 반에서 담임교사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아동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질문지 작성요령을 안내한 후 실시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를 SPSS 12.0을 사용하여 다음과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변수들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기술통계를 산출하여 살펴보았으며,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t-test를 실시하였다. 모 애착 정도와 분노, 그리고 정서·행동문제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모 애착 정도와 분노가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성별에 따른 모 애착정도와 분노, 정서·행동문제 차이검증

애착점수, 분노, 정서·행동문제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모에 대한 애착 정도의 점수 범위는 42~120점이며, 평균은 95.36으로 나타났다. 분노와 관련된 하위요인별 경향성을 살펴보면, 특성분노는 10~40점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은 20.2이고, 억제점수의 범위는 7~31점으로, 평균은 15.5이다. 표출점수의 범위는 8~32점이고 평균은 16.4이며, 조절점수의 범위는 8~30점이 나왔고 평균은 17.1로 나타났다. 정서·행동문제와 관련된 하위 요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정서문제는 0~7점의 범위에서 평균 2.4이며, 과잉행동점수의 범위는 0~8점이고 평균점수는 2.4이며, 친사회성 문제의 점수 범위는 0~8점이며 평균은 3.7로 나타났다.

<표 2> 성별에 따른 모 애착, 분노, 정서·행동문제 차이 및 평균 범위

(N=384)

변인	성별	N	M(SD)	t	범위	M (SD)	
모애착	남	183	95.2(12.0)	-.27	42~120	95.36(12.95)	
	여	201	95.5(13.8)				
분노	특성분노	남	183	20.3(5.9)	.15	10~40	20.27(6.29)
	여	201	20.2(6.6)				
	분노억제	남	183	14.9(4.3)	-2.45*	7~31	15.54(4.77)
	여	201	16.1(5.1)				
	분노표출	남	183	16.1(4.7)	-1.25	8~32	16.43(5.08)
여	201	16.7(5.4)					
분노조절	남	183	17.0(4.1)	-.97	8~30	17.15(3.91)	
여	201	17.3(3.7)					
정서행동문제	정서문제	남	182	2.3(1.8)	-.71	0~7	2.4(1.85)
	여	201	2.4(1.9)				
	과잉행동	남	182	2.5(1.8)	1.18	0~8	2.4(1.99)
여	201	2.3(2.1)					
친사회성 문제	남	182	3.8(1.5)	.58	0~8	3.7(1.54)	
	여	201	3.7(1.9)				

*p<.05

<표 3> 모 애착, 분노, 정서·행동문제간의 상관관계

	모애착 정도	특성 분노	억제	표출	조절	정서 문제	과잉 행동	친 사회성	
애착	모애착 정도	1							
분노	특성 분노	-.28***	1						
	억제	-.22***	.66***	1					
	표출	-.20***	.75***	.66**	1				
	조절	.18***	-.15**	.09	-.12*	1			
정서 행동 문제	정서 문제	-.29***	.43***	.51***	.38***	.01	1		
	과잉 행동	-.18***	.60***	.46***	.54***	-.21***	.45***	1	
문제	친사회성 문제	-.30***	.19***	.11*	.20***	-.41***	.13*	.29***	1

*p<.05 **p<.01 *** p<.001

아동의 성별에 따른 각 변수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분노억제($t=-2.45, p<.05$)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억제의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분노를 좀 더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모 애착 정도와 분노, 정서·행동문제간의 상관관계

모 애착 정도와 분노, 정서·행동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첫째, 모애착과 분노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애착과 특성분노간의 상관관계는 $r=-.28(p<.001)$ 로 나타났으며, 분노억제, 표출이 각각 $r=-.22, -.20(p<.001)$, 분노조절은 $r=.18(p<.001)$ 로 밝혀져 모 애착 정도와 분노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모와의 애착 정도가 낮을수록 아동의 분노 경향성이 높으며, 분노를 표현함에 있어서도 더 많이 억제하거나 표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모 애착 정도가 높으면 아동이 분노를 더 잘 조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모 애착 정도와 정서·행동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서문제와는 $r=-.29(p<.001)$ 로 나타났으며, 과잉행동은 $r=-.18(p<.001)$ 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사회성문제는 $r=-.30(p<.001)$ 으로 나타나, 모 애착 정도와 정서·행동문제 모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아동이 모에 대한 애착 정도가 낮을수록 정서, 과잉행동문제를 더 많이 나타내며, 친 사회적인 경향이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분노와 정서·행동문제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분노와 정서·행동문제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먼

저, 개인의 분노경향성인 특성분노와 정서·행동문제를 살펴 보면, 하위영역인 정서문제($r=.43, p<.001$), 과잉행동($r=.60, p<.001$), 친사회성 문제($r=.19, p<.001$) 모두 유의하여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노 억제와 정서·행동문제 간에도, 정서문제($r=.51, p<.001$), 과잉행동($r=.46, p<.001$), 친사회성문제($r=.11, p<.05$) 모두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노표출과 정서·행동문제 간에는 정서문제($r=.38, p<.001$), 과잉행동($r=.54, p<.001$), 친사회성문제($r=-.20, p<.001$) 모두 높은 유의수준을 보여 상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분노조절과 정서·행동문제 간에는 과잉행동($r=-.21, p<.001$), 친사회성문제($r=-.41, p<.001$)가 유의하게 나왔으나, 정서문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특성분노가 높을수록 정서·행동문제를 더 많이 나타내며,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서도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표출할 때 정서·행동문제가 더 많이 유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분노를 잘 조절하는 아동이 품행 문제나 과잉행동이 적고 친사회적이지만, 정서문제에 있어서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내면적인 문제보다는 외현화된 문제에 있어서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모 애착과 분노가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모 애착 정도와 분노가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

<표 4>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모 애착과 분노의 상대적 영향력

종속 변수	모형	독립변수	B	β	R ²	ΔR^2	F	Durbin-Watson
정서문제	모형1	애착	-.04	-.29***	.09	.08	36.14**	2.01
		애착	-.03	-.18***				
	모형2	특성분노	.04	.13*	.30	.21	32.09***	
		분노억제	.15	.38***				
		분노표출	.00	.00				
	모형2	분노조절	.01	.03				
과잉행동	모형1	애착	-.03	-.18***	.03	.03	12.92**	1.96
		애착	.00	.01				
	모형2	특성분노	.13	.39***	.40	.37	49.98***	
		분노억제	.05	.11				
		분노표출	.06	.15*				
	모형2	분노조절	-.07	-.14*				
친사회성 문제	모형1	애착	-.04	-.30***	.08	.08	37.14***	1.94
		애착	-.03	-.21***				
	모형2	특성분노	-.01	-.06	.22	.14	22.68***	
		분노억제	.02	.06				
		분노표출	.04	.12				
	모형2	분노조절	-.15	-.37***				

* $p<.05$ ** $p<.01$ *** $p<.001$

이 정서·행동문제 3개 하위 요인(정서문제, 과잉행동, 친사회성 문제)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모 애착 정도와 분노의 4개 하위요인(특성분노, 분노억제, 표출, 조절)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모 애착 정도를, 2단계에서는 분노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첫째, 정서문제를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모형1에서 모의 애착정도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모 애착정도가 정서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29, p<.001$)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9%였다. 다음으로 특성분노와 분노억제, 표출, 조절을 투입한 결과 21%의 추가설명력을 가졌으며, 애착($\beta=-.18, p<.001$)과 분노억제($\beta=.38, p<.001$)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와의 애착정도가 낮을수록, 분노를 억제할수록 정서문제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과잉행동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모형1에서 모 애착 정도가 과잉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며($\beta=-.18, p<.001$)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비량은 3%였다. 모형 2에서 분노 변수를 투입한 결과 추가설명력은 37%이며, 모형 1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모 애착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특성분노($\beta=.39, p<.001$)와 분노표출($\beta=.15, p<.05$), 분노조절($\beta=-.14, p<.05$)이 유의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과잉행동에 있어서 아동의 분노기질 및 분노표출이 높고 분노조절이 낮을수록 과잉행동문제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친사회성문제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모 애착 정도와 특성분노, 분노억제, 표출, 조절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 애착정도가 유의미한 예연변인으로($\beta=-.30, p<.001$) 종속변인을 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의 추가 설명비량은 14%이며, 모 애착 정도($\beta=-.21, p<.001$)와 분노조절($\beta=-.37, p<.001$)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모 애착정도가 낮고 분노조절이 안 되는 아동이 친사회성에 문제가 더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아동과 모의 애착 정도와 분노와의 관계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모의 애착정도와 아동의 기질적인 분노, 그리고 분노표현방식에는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노 표현 방식에 따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른 모 애착 정도와 분노 정서·행동문제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분노억제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애착에 대한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초등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모 애착 정도와 차이가 있었다는 정영옥(2002)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으나 성별의 차이가 없었다는 이하경(2003)의 결과와는 일치하였다. 이는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동의 발달 특성으로 인해 아동의 심리적 불안정성이 일반화되어 애착 안정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이하경, 2003)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노표현방식에 대한 성별의 차이에 대해, 분노억제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결과는 최형석(2005)과 김진아(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분노표현방식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손민정, 2003)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최형석(2005)의 연구에서는 분노억제점수가 여아보다 남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여아가 남아보다 분노억제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과는 일치하지 않게 나왔으며, 여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김진아(2007)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Lerner(1985)에 의하면 여성이 분노감정의 파괴성이 미치는 영향을 두려워하여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전민정, 2007 재인용), 아동기의 여아 역시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분노를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때, 공격적이거나 거친 분노표현이 사회적으로 여성답지 못하다는 관념 속에서 억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성별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볼 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행동문제가 애착과 함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송지영·박성연, 2010; 이은경, 2003)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정서·행동문제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서찬란·이형실(2006)의 결과와는 일치하고 있다. 대상에 따라 살펴볼 때, 유아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김현주, 2005; 이민영, 2010) 보고하고 있고, 후기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관성이 없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 유아기와 아동 초기에 뚜렷이 나타나는 성차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인차가 발생함으로 인해 일관성이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모 애착 정도와 아동의 분노, 정서·행동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와 애착정도와 분노, 정서·행동문제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애착정도가 낮은 아동일수록 분노경향성이 높았으며, 분노표현방식에 있어서 억제와 표출정도가 높게 나왔다.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 역시 모와의 애착정도가 낮을수록 정서, 과잉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자신의 분노를 잘 조절함으로써, 내면적인 정서문제에 있어

서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며, 과잉행동이나 품행상의 문제가 적게 나타나지만, 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소외감을 더 많이 느낄수록 아동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가지며, 정서적인 문제와 행동적인 문제를 더 많이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불안정 애착 유형이 기질적인 분노가 높고 긍정적 분노조절보다는 부정적인 분노표출과 억제를 더 나타내며(문소현, 2008), 어머니와 교사에게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에 비해 더 친사회적이라는 연구(손혜숙, 2000; 이경숙, 2000), 불안정한 애착아동이 안정애착아동에 비해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송지영, 2010; Brisch, 1999; Douglas, 1999)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원인으로 모와의 애착정도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동기의 분노표현과 도 관계가 깊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분노와 정서·행동문제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것을 보면, 분노가 높은 아동이 정서·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였으며, 분노표현방식에서도 억압하거나 표출하는 아동에게서 정서·행동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분노조절과 정서문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조절되지 못한 아동의 분노가 좀 더 외현화된 문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분노조절이 어려운 아동이 청소년기에 가서 품행장애나 반항장애등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Ray, Blanco, Sullivan, & Holloman, 2009), 아동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표출할 경우 성인기에 가서도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채해정, 2004). 또한 이러한 분노표현은 신체 및 언어적 공격성(Deffenbacher, Damm & Brandon, 1986)과 아동 및 배우자 폭력(Nomellini & Kats, 1983)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아동의 즉흥적인 분노가 많을수록 외현적 공격행동과 대인관계 공격행동이 증가한다(박종효, 2005). 이처럼 아동의 분노조절이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Amanda, Jennifer, et al, 2010)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감소를 위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중요하다 여겨진다.

이와 같이 아동의 모 애착 정도와 분노, 그리고 정서·행동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모와의 애착 정도가 아동의 분노표현과 관련이 있으며, 정서·행동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동이 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은 아동의 분노표현을 조절하고 정서·행동문제를 감소시키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초등학교 아동의 부모애착이 문제행동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송지영, 2010)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감소와 분노조절을 위해 모와의 애착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셋째, 모 애착 정도와 분노와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상

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모 애착 정도와 분노 모두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정서문제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모 애착정도와 분노 모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의 하위변수별로 살펴볼 때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변수는 분노 억제로, 이는 아동이 자신의 분노를 지나치게 억압할수록 아동에게 정서적 문제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분노억제가 높은 사람이 분노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이경순, 2000), 정서적으로 우울한 사람이 분노억제경향성이 높으며(고경희, 2000), 정서변화에 민감한 아동이 분노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남주희, 2010), 아동의 정서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분노를 지나치게 억제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적당히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연구결과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과잉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모 애착정도와 분노 모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 애착정도에 비해 분노가 더 높은 영향력이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분노의 하위변수별로 살펴본 것을 보면, 분노억제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특성분노, 분노조절, 분노표출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의 과잉행동 문제에 대해서는 아동이 가진 기질적인 분노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동의 모 애착정도와 특성분노 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때, 모와의 신뢰롭지 못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이 기질적 분노가 높을 경우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있어서 과잉행동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 애착유형에서 특성분노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김해진, 2008)와 기질분노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문소현, 2008)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특성분노 다음으로 높은 영향력을 가진 변수가 분노조절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모 애착 정도가 낮고 특성분노가 높을수록 분노조절에 어려움이 있다는 상관관계결과와 관련하여 아동의 낮은 분노조절 수준은 행동통제의 어려움과도 관련이 높아 과잉행동문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잉행동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에서 아동의 높은 분노와 낮은 분노조절이 상대적으로 다른 변수들에 비해 높은 영향력을 가진다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의 외현화 되어 나타난 과잉행동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에서 안정애착 형성, 아동의 분노 감소, 조절능력 향상이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친사회성 문제와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모 애착 정도와 분노가 모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노의 하위변수 중에서 다른 변수를 제외한 분노조절만이 가장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아동의 친사회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안정된 애착형성과 분노조절이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불안정-회피 애착관계의 아동이 또래관계에 있어서 친사회적 성향이 낮다는 연구결과(Berlin et al., 2008; Lyons-Ruth & Jacobvitz, 200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이 모와의 애착이 불안정하고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경우 또래관계에서 부정적 피드백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동의 친사회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모와의 안정된 애착형성은 또래에 대해서도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박상미, 1999), 자기신뢰성이 높아져서 주변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이정숙, 2004), 아동의 초기 부모와의 애착경험이 이후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이정숙, 2000) 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은 아동의 친사회성 문제를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이 분노조절프로그램을 통해 또래관계나 교우관계 등 친사회적문제가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김순옥, 2001; 김미라, 2008; 정지나, 2008 등)들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의 분노조절 향상을 통해 친사회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살펴봄에 있어서 아동의 모 애착 정도와 아동의 분노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아동이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보다 분노를 더 많이 느끼며, 아동이 분노를 느낄 때 그 분노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가에 따라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이 있었다. 아동기의 정서·행동문제를 예방하고 나아가서 청소년기, 성인기에 더 큰 병리적 문제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기 아동기에 분노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연구결과 알 수 있었다. 특히 정서문제에 있어서는 모와의 애착을 안정시켜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분노를 억압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행동문제에 있어서는 아동이 안정된 애착형성과 더불어서 분노표출을 감소시키고 조절능력을 키워주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정서·행동문제를 감소시킴으로써 아동의 친사회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고 주변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분노조절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인지 교육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왔다(채혜정, 2004). 그러나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유발하는 변수에 있어서 모와의 애착증진은 중요한 변수라 볼 수 있으며, 안정된 애착을 토대로 하여 분노조절프로그램이 개입되었을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후기 아동기에 분노를 감소시키고 조절하기 위해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변수들로서 애착과 분노표현 방식의 관계와 영향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첫째, 연구대상에 한계가 있었다. 전라북도 2개 도시의 초등학교 5, 6학년만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이기에 일반화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좀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후기 아동기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아동 초기와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선행연구의 자료가 미비하여,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분노와 행동문제에 대하여 후기 아동기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하였다. 아동의 분노가 행동문제에 영향이 있으며, 후기 아동기가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 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볼 때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국내에서 타당화연구가 실시된 SDQ척도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높지 않게 나왔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척도 타당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지원실(2010). 가정의 달 5월, 우리 아이에게 관심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평가 보도 자료, 1-6.

고경희(2000). 특성분노, 분노표현양식과 비합리적 신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곽소현·김순옥(2006).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로모형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6), 95-116.

김귀량(2005). 아동의 분노표현과 또래폭력 경험.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라(2008). 인지행동적 분노조절훈련이 아동의 분노조절능력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숙령(1995). 유아의 애착상태와 유치원 생활에서 나타나는 사회정서적 문제행동들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연구, 15(1), 21-38.

김순옥(2001). 초등학교의 교우관계 향상을 위한 분노조절 프로그램 개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용섭(1984). 분노에 대한 연구. 고신대학논문집, 12, 71-90.

김진아(2007). 초등학교생이 지각한 부·모 애착이 분노경험 및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해진·신현균·홍창희(2008). 성인애착유형, 특성분노 및 음주문제의 관계: 분노표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3), 729-748.

김현주(200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행동문제 관계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2009).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분노표현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순(2009). 어머니의 애착실행모델, 정서표현성,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59, 329-348.
- 나승은(2009). 모 애착과 또래 애착, 내현적자아가 청소년의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주희(2010). 아동의 성격차원과 분노표현의 관계: 특성 분노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소현(2008). 청소년기 여성의 애착유형에 따른 기질분노와 분노표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4(2), 143-149.
- 박명희(2004). 초등학교 5, 6학년 학교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미(1999).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자아지각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효(2005). 또래 공격행동 및 피해행동에 대한 이해 선행요인 탐색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1), 19-35.
- 서찬란·이형실(2006). 가족환경 및 개인 심리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8(2), 151-162.
- 손민정(2003). 부모의 분노표현 방식 및 아동의 분노표현 방식과 자기주장행동.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혜숙(2000). 복합애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성과 반사회성. 아동교육연구, 20(3), 85-97.
- 송지영·박성연(2010). 초등학교 아동의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이 남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문제행동과 비행친구 유무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1(3), 51-66.
- 송지은(2007). 분노수준 및 표현양식과 대인관계 성향의 관계.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근석(1991). 심리학 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 안정숙·정성균·한준규(2003). 한국어어판 강점·난점 설문지 개발. 신경심리의학, 42(1), 141-147.
- 양야기·이정숙(2009).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교폭력태도, 분노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8(4), 369-378.
- 옥정(1998).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인(2005). 부부의 애착유형과 결합 형태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숙(2000). 학령기 아동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가 거부민감성 및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1), 51-59.
- 이경순(2000). 분노억제경향과 문제해결이 분노정서 경험과 혈압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건강, 5(1), 60-72.
- 이규미(1998). 청소년의 분노와 분노처리과정에서의 공격행동에 관한 체험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민영(2010). 어머니의 완벽주의 성향 및 양육 행동과 유아의 사회, 정서적 행동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애(2000). 청소년 공격행동과 상황조건에 따른 의도지각, 귀인 및 분노에 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1(2), 5-28.
- 이은경(2003). 결손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연구: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2004). 아동의 애착과 자아지각 및 행동문제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9(3), 149-168.
- 이하경(2003). 학령기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민정(2007). 분노를 억제하는 성인 여성의 집단미술치료 체험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미영(1999).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따른 대처반응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옥(2002). 아동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2004). 발달심리학:전생애 인간발달. 서울: 학지사.
- 정원주(1997). 아동기 스트레스원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그 증상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6), 87-99.
- 정윤희(2002).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시교가 반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인석(1988). 신 청소년 심리학. 서울: 대왕사.
- 정지나(2008).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지영(2009). 고등학생의 분노표현방식, 우울 및 공격성간의 관계 연구. 학생생활연구, 73-95.
- 진향덕(2000).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부적응 증상과 아동의 애착과의 관계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세연(2010). 청소년의 문화성향, 정서표현양상, 분노표현양식 및 공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혜정(2004). 학령기 아동의 분노 경험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8(4), 671-703.

- 최형석(2005). 따돌림의 정도, 분노표현방식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lan, S., & Gilbert, P.(2002). Anger and anger expression in relation to perceptions of social rank, entrapment and depressive sympto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 551-565.
- Amanda Sheffield Morris, Jennifer S. Silk, Laurence Steinberg, Andrew M. Terranova, Mumbe Kithakye (2010). Concurrent and Longitudinal Links Between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 in School and Observed Anger Regulation in the Mother-child Dyad. *Journal of Psychopathology Behavior Assessment*, 32, 48-56.
- Armsden, G. C.,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erlin, L. J., Cassidy, J.,& Appleyard, K.(2008). The influence of early attachment on other relationships.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pp.857-879)*. New York: Guilford Press.
- Bowlby(1973) *Attachment and loss: Separation*. Newyork: Basic Books.
- Brisch, K. H.(1999): *Bindungsstörungen: Von der Bindungstheorie zur Therapie*, Stuttgart, Klett-Cotta.
- 애착장애의 치료. 장휘숙 역(2003). 서울: 시그마프레스
- Carter, L & Minirth, F.(1993). 이승재 역(2001) 분노로부터 평안을 얻는 삶. 서울: 은혜출판사.
- Collins, N. L. & Read, s. J.(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Deffenbacher, J. L(1999). Cognitive-behavioral conceptualization and treatment of ange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5, 295-309.
- Deffenbacher, J., Damm, P. M, & Brandon, A. D.(1986). High general anger: Correlates and treatment. *Behavior Research and Terapy*, 24, 481-489.
- Douglas, D.(1999). *Child Development*. N. Y: The Guilford Press.
- Elleson, Ann(1982). *Human Relations*. Englewood Cliffs, N.J.: Perntice Hall Inc.
- Eric R. Dahlen. & Ryan C. Martin(2005).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perceived social suppor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 391-401.
- Lerner, H. G.(1985). *The Dance of Anger*.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Lyons-Ruth, K., & Jacobvitz, D.(2008). Attachment disorganization: Genetic factors, parenting contexts, and developmental transformation from infancy to adulthood.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pp.857-879)*. New York: Guilford Press.
- Mikulincer, M.(1998). Adult Attachment Styl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Functional Versus Dysfunctional Experience of Ang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513-524
- Nomellini, S., & Kats, R. C. (1983) Effects of control training on abusive parents. *Cognitive Therapy Research*, 7, 57-68.
- Novaco, R. W.(1994). *Clinical problems of anger and its assessment and regulation through a stress coping skills approach*. In W. O'Donohue & L.
- Ray, D. C., Blanco, P. J., Sullivan, J. M., Holloman, R. (2009). An Exploratory Study of Child-Centered Play Therapy With Aggressive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Vol. 18, NO. 3, 162-175.
- Sharkin, B. S.(1988). The measurement and treatment of clint ange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April, 66, 361-365.
- Spielberger, C. D., Jacobs, G. A., Russell, S., & Crane, R. S. (1983).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Scale.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3, N. J.: LEA, 119-187.

접수 일 : 2010년 09월 15일
 심사 일 : 2010년 10월 07일
 심사완료일 : 2010년 11월 16일